

전매광장

조세핀

시인·광주전남작가회의 회원



떡집에서 전화가 왔다. 오메 내가 부탁 좀 하려고. 감사 또 감사라고 써 있길래 전화했다는 떡집 안주인은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말을 이어갔다. 떡값을 1만5,000원으로 올려야 하는데 내일까지는 현재 가격으로 줄 테니 미리 예약을 하란다. 찹쌀이며 팔 가격이 너무 올라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장사할 수 없다면서 말이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지 누굴까 기억이 날 듯 하는데 하며 내 목소리를 더듬는다. 전화를 건 사람이 모를 리야 없겠지만 나는 전화번호 뒷자리를 알려준다. 오메 안 그래도 내가 감사 또 감사라고 써놔네.

흰 쌀밥 님은 이팝나무 꽃

이 떡집은 노부부가 모찌만 만들어 판매하는 곳이다. 국내산 찹쌀에 국내산 팥을 듬뿍 넣어 맛이 일품이다. 보통의 모찌는 너무 달아 먹기 거북한데 이 집은 그렇지 않다. 지인들에게 선물하기에도 좋아 자주 들른 곳인데 돌아보니 근래에는 뜸했던 것 같다. 사실 떡집 안주인은 오 늘뿐 아니라 가끔 전화를 걸어 왔다. 오메 내가

오늘 떡을 너무 많이 해서 남게 생겼네. 어제 예약했던 사람이 갑자기 취소했네. 어이 와서 떡 좀 가져가소 라고 하소연 조로 말하면 나는 멀리 있지 않은 이상 못이긴 척 간다. 떡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정상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 박스 정도 사와야겠다 싶어 가면, 여지없이 한두 박스 더 갖고 오게 된다. 새벽부터 떡을 만드느라 지친 얼굴로 꺾아 줄 테니 더 가져가라고 내밀면 어쩔 도리가 없다.

떡 애기를 하다 보니 지금 한창 피어 있는 이팝나무가 떠오른다. 가로수로도 많이 심어져 있는 이팝나무. 바람에 흔들리어 떨어진 꽃을 보면 길쭉길쭉한 모양이 꼭 쌀밥과 닮아있다. 흰 쌀밥과 닮은 꽃을 가진 이팝나무 꽃에 얽힌 이야기도 있다. 옛날 가난한 집에서 시아버지의 제삿날이 돌아왔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그동안 아껴뒀던 흰쌀로 밥을 지었다. 그리고 제삿밥을 뜨기 전 잘 익었나 알아보기 위해 몇 알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때마침 그 장면을 시어머니가 보았다. 이를 본 시어머니는 감히 시아버지 제삿밥에 손댔다며 크게 호통쳤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되고 배고픈 시집살이에 억울하게 누명까지 쓴 며느리는 그날 밤 나무에 목을 매고 죽고 말았다. 몇 년 후 며느리의 무덤에서 한 그루의 나무가 자랐다. 그 나무에서 꽃이 피었는데 꼭 흰 쌀밥과 같았다는 이야기다. 이팝은 이밥을 뜻하는 함경도의 사투리라고 한다. 이팝나무를 쌀밥나무라고 부르기도 한 이유다. 배고픈 시절 쌀밥처럼 생긴 이팝나무의 꽃을 보고 배고픔을 달랬을 이들을 생각하니 땅에 하얗게 떨어져 있는 이팝나무 꽃이 달리 보였다.

빵 대신 떡은 어떤가요

문득 이팝나무의 유래를 요즘 초등학교 아니 대학생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다.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라고 했듯 흰쌀밥이 없으면 무엇을 먹겠다고 할까. 아마 빵이 아닐까 싶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나만 보더라도 빵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뽕지순례니 뭐니 하며 맛집으로 소문난 뽕집은 줄을 서야 살 수 있는 것이 요즘 실태이다. 떡이 맛집이라고 소문나 줄을 서서 사는 경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쌀 소비량 현저히 줄어

오죽했음 이팝나무 꽃으로 배고픔을 달랠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쌀 소비량이 적어 문제가 될 줄이야.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할까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아침밥 먹는 장면을 인증샷으로 올리게 하고, 최종 승자에게는 금 다섯 돈을 주겠다는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는 곳도 있다. 말로야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위해 아침 식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닌가. 떡도 쌀로 만든 것이니 떡을 가끔 사 먹는 나로서는 일정 부분 쌀 소비를 감당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 지난주부터 빵을 줄이기 위해 뽕집을 지나치고 있다. 되도록 뽕집으로 가려는 발길을 돌려 떡집으로 갈 생각이다. 그동안 단골들한테는 내일까지 서비스할 테니까 꼭 와 잉. 몇 개 할당가. 네 그럼 세 박스 할게요. 아따 다섯 박스 하소. 내일이 마지막이라니까. 내일 모찌 사라 가야겠다.

하늘

우리는 오랜 세월 ‘하늘’을 동경하며 살아왔다. 그 ‘하늘’은 높고 넓은 공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경외(敬畏)하는 절대자로서 ‘하느님’의 의미가 더 컸다. 선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욕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해, 달, 별이 조금만 제빛을 잃어도, 흥수가 가뭄이 들어도, 바람의 기류가 수상쩍어도 혹여 부끄러운 짓을 해서 하늘이 노하지 않았는지 조심 또 조심했다. 하늘의 변화와 뜻을 읽어내려고 예를 썼으며 늘 혜택에 감사했다. 하늘을 향해 보내는 메시지 역시 겸손하고 소박했다. 분에 넘치지 않는 소망을 연(薦)이나 종이비행기 등에 정결하게 실어 요란스럽지 않게 띄워 보내곤 했다. 어린 날, 하늘을 바라보는 일은 항상 설렘이 었다. 양초로 만들반들 윤을 내어놓은 한옥 마루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거꾸로 누워서 바라보는 하늘은 그야말로 만화경이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형상들을 숨씨도 좋게 빚어서 펼쳐 놓는 요술쟁이 구름이 있고, 그 구름을 양 떼 몰듯 마음대로 다루는 바람이 있었다. 여름밤, 마당의 평상에 누워서 바라보던 밤하늘은 또한 얼마나 장관이었던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무수한 별들이 어울려 술래잡기를 할 때면 덩달아 살금살금 숨고 싶었다. 내게 유년의 하늘은 신비로운

으로 가득 찬 상상의 궁전이었으며, 희망의 날개를 달고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꿈의 공간이었다.

도회지 회색 벽에 갇혀 길다면 긴 세월을 바둥거리는 동안 슬금슬금 하늘이 사라져 버렸다. 철마다 다채로운 표정으로 감동을 주던 달도, 별도, 구름도 모두 오색 섬광을 발하는 빌딩 숲에 묻혀버렸다. 더 이상 ‘푸른 하늘 은하수하얀 쪽배에...’라는 동요를 부르는 아이들도 없고, 하늘을 바라보며 꾸던 상상의 꿈도 ‘우주정복’이라는 물결에 휩쓸려 화들짝 깨어버졌다. 죽고 살고, 이기고 지고, 사고팔고 등등에 매몰되어 현대인들은 하늘까지 바라볼 여유가 없다. 늘 심신이 피곤하고 바쁘기만 하다.

하늘을 볼 수 없으니 선과 악의 구별이 불분명해지고 소리를 역행하는 일에도 무감각하다. 힘없고 영악하지 못한 선한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게 무시무시한 블랙홀에 잠식당하고 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아 죽을 사람’, 이럴 때 이보다 적절한 말이 있을까. 한때 하늘의 가장 정당한 심판으로 여겼던 그 말조차 과학적인 근거와 원리로 조목조목 풀어버리는 세상이다. ‘은하수’, ‘달맞이’, ‘달무리’, ‘해맞이’, ‘해넘이’, ‘무지개’, ‘노을’, ‘햇무리’, ‘새털구름’, ‘양떼구름’... 하늘이 보여주는 온갖 표정들이 몹시 그림고 보고 싶어지는 날이다.

영농철 ‘농기계 사고’ 안전 수칙 준수를

기계 이용 전 헬멧, 안전화 등과 같은 안전용품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회전체 작업을 할 경우 소매나 옷자락 등이 농기계에 끼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회전체는 가급적 안전 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농기계 점검은 반드시 시동을 끄거나 전원 차단 후에 실시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기

계로 좁은 농로, 경사로를 이동할 경우 진입 전에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음주 후 농기계 운전을 삼가야 하며, 작업 시 주변 상황을 확인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영농철에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안전 수칙을 잘 지켜 사고를 방지했으면 한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장

사설

‘회갑’ 광주시민의 날 새로운 시작 계기로

광주시가 회갑을 맞았다. 21일이 광주 시민의 날 60주년 생일이었다. 원래는 11월 1일이던 시민의 날을 1980년 5월 광주 시민의 항거로 계엄군이 퇴각한 날을 기리기 위해 2010년부터 5월 21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했다. 회갑 잔치는 주말인 24일에 벌인다. 보다 많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잔치상은 풍성하게 차려진다. 24일 오후 6시 시청 야외음악당 본무대에서 기념식을 진행한다. 관악대 행진을 시작으로 광주시민의 날 60년 회고 영상, 시장 기념사, 2025 시민 대상 시상, 디자인비엔날레 1호 티켓 전달, 주먹밥 나눔 퍼포먼스 등이 잔치상에 오른다.

저녁 한 끼로 때우진 않는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시민과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올해 회갑을 맞은 1966년생 시민 10여 명을 초청해 전통방식으로 생일잔치를 여는 수연례(壽宴禮)를 비롯해 7080 레트로 음악과 광주 이야기로 구성된 ‘광주의 노래’, 조선시대 태권도 뮤지컬, 정책 골든벨, 꿈의 오케스트라 등 푸짐한 점심상도 마련했다. 시청 앞 도로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그 공간에 지난

해 큰 인기를 끌었던 워터월드가 설치된다. 잔디광장은 ‘피크닉 인(in) 광주’로 꾸며 시민들이 소풍 나올 수 있게 한다.

본격적인 잔치는 아무래도 저녁에 펼쳐진다. 광주 5개 자치구 대표 20개 팀을 초청해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저마다의 재주를 뽐낼 수 있도록 했다. 광주가 낳은 대가수 김연자의 축하 공연도 잔치의 흥을 더한다. 광주시의 주요 정책을 시민이 평가하는 정책박람회도 열린다. 시민의 손소리로 새겨들어 달게 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빛의 정원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광주 대표 캐릭터인 ‘빛돌이’가 혼인을 하는 퍼포먼스에 마련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민의 날 60주년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일군 광주의 역사이자 앞으로 60년을 함께 꾸꾸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맞다. 회갑이 지나면 진갑(進甲)이다. 두 번째 갑(甲)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다. 인생은 60부터란 말도 있듯이 광주의 발전도 이제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광주시와 광주시민이 어깨 결고 함께하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강 시장이 단단히 각오를 다지고 앞장서길 당부한다.

전남도 전파산업 거점 도약 기대 크다

전남도가 전파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이다. 전파 없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하고 신산업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 전파·전파산업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를 얻고 소통하고 문자나 메시지,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다 전파 덕분이다. 방송과 통신을 넘어 에너지, 국방, 의료, 우주항공 등에도 전파가 활용된다. 차량에 탑재된 충돌 방지나 자율주행을 위한 레이더도 전파를 이용한다. 차세대 로봇에 필요한 정보, 에너지 공급도 전파가 필요하다.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이나 산소와도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파산업의 현주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용어가 없을 정도로 소홀히 취급받고 있다. 전파나 전파산업에 대한 인식과 법제화도 미흡하다. 그 중요성에 비해 몹시 허술하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나주 혁신도시에 호남권 전파측정센터를 개소 해 전파 환경시험, 전파 간섭 해소 지원, 제품 전파 성능 분석 등 국가 차원의 전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미래 신산업의 핵심기술이자 블루오션으로 전파

·정보통신기술을 육성해 인력 양성과 기업 유치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더구나 나주 혁신도시는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광주전파관理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파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농업 및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전파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남도가 이처럼 우수한 전파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 드론, 무인 이동체, 스마트 농업 등 지역 특화산업과 전파기술의 융합을 통해 대형 국책 사업을 유치하고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나서면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가 기왕에 한국전파진흥협회,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나주시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전파정보통신기술 신산업의 거점도시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한 만큼 지역 기관이나 지역 대학 등과도 연계해 지역 거점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등 대형 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해 전파산업의 전진기지가 되길 바란다. 정부도 전파산업과 관련한 법과 제도 정비는 물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나서길 바란다.

사진 속 세상



전통 논갈이 겨릿소 씨레질

21일 경기도 수원시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열린 토종벼 전통 손모내기 및 겨릿소 시연 행사에서 초등학생들이 겨릿소 씨레질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겨리’는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로 중북부 산간 지역에서 주로 행해진 논밭 갈이 방식이다. 연합뉴스

독자투고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트랙터, 경운기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기계 사고는 주로 전복, 기계 끼임, 급경사지 및 배수로 추락 등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고 원인은 작업 중 부주의, 기계 조작 미숙, 안전 장비 미착용 등이 주로 꼽힌다.

이 같은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경남		주필 이종주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편집국장 박간재	
정정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news@naver.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jndnnews@naver.com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